YOUTH ACTION PROJECT

기후 위기에 맞서는 유스를 위한 액션툴킷

본 액션 툴킷은 인간이 만든 기후 위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어떤 인권 위기를 가져오는지 알고 이에 맞서는 유스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툴킷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으며, 특히 동아리, 모임, 공동체 혹은 학교 수업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후 위기가 오직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환경 및 생태계 문제를 유발하지만 본 툴킷에서는 특히 기후 위기와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중점으로 다룸을 미리 밝힙니다.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로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몇 해에 걸쳐 나타나는 기온, 비, 눈, 바람 등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지구는 원래 일정한 기후를 유지하며 조금씩 변하는데 몇십 년 전부터 (사실은 산업화 이후부터 쭉)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기되었고, 기온 상승에 이어 폭우와 산불, 건조 현상 등 그동안은 없었던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기후변화'**라 불러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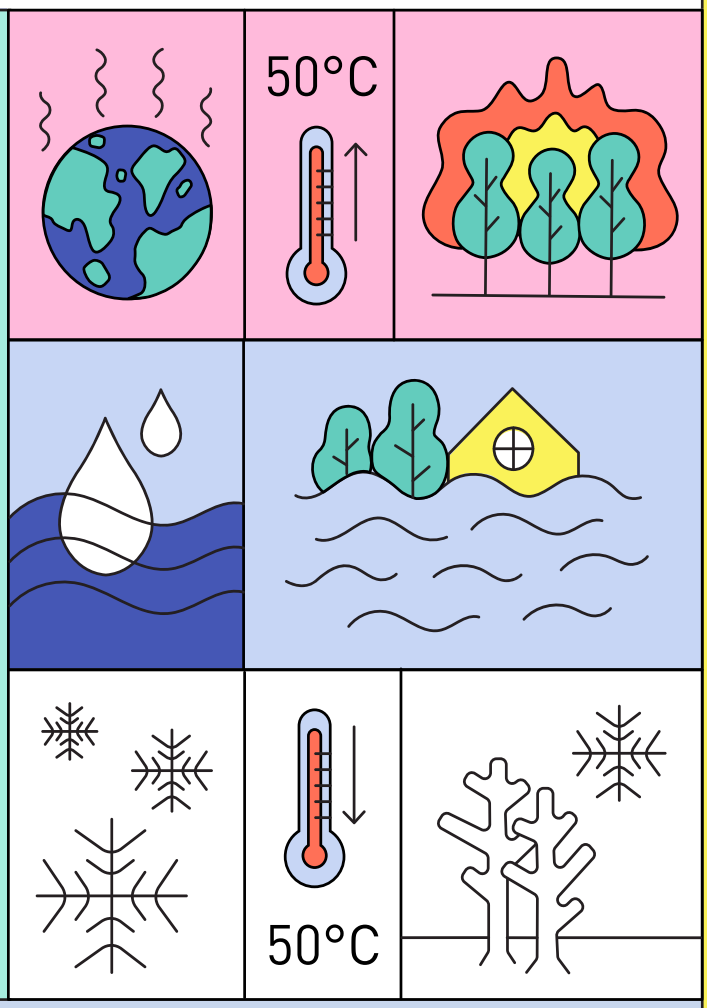
현재의 기후변화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산불, 폭우,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미세먼지, 감염병** 등이 발생하여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많은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 파괴되고 심지어 멸종하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이상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 빈도와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긍정도 부정도 의미하지 않는 '변화'라는 용어만으로는 지금의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기후 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기후 과학자들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폭염**은 전세계적으로 이전 기록을 깰 정도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0년만의 극심한 폭염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최고 기온이 50도 이상에 육박하여 일주일간 약 700명이 사망했으며, 10억 마리 이상의 물고기, 조개 같은 해양 동물이 높은 수온으로 물 속에서 화상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되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 발생 빈도와 기간이 늘어나고, 한겨울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가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불리는 러시아 극동 지방의 사하공화국도 150년 만의 고온건조한 날씨 때문에 200건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극심한 **폭우와 홍수**로 200명 이상이 숨지고 1000명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간이 생존을 위협받은 것은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2003년 유럽에서 폭염으로 7만명이 조기 사망했고 2010년에는 러시아 폭염으로 5만 5천명이 숨지고 150억달러 상당의 농작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재판"

기후 위기가 우리 일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상한' 재판 하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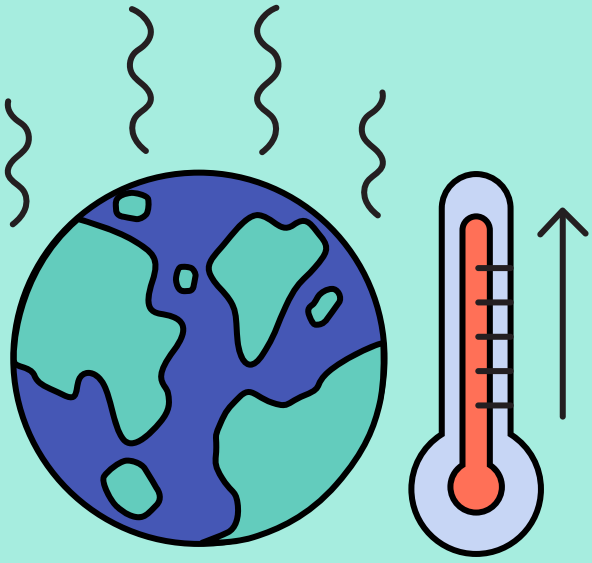
<생각해보기> 일상에서 어떤 기후 위기를 경험했나요?

극심한 기후 위기, 왜 발생할까?

전 세계 기후 과학자의 97%는 지구 온난화 대부분이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석탄, 가스,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인데 이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와 같이 지구 대기를 오염 시켜 지구를 뜨거워지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했고 **현재 온실가스 농도는 지난 200만 년을 통틀어 가장 높아요!** 2019년 기준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40.4%로 미국(24%), 일본(32%), 독일(30%), 영국(2%), 프랑스(1%) 등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8년 기준 7억 톤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로 한국은 기후 위기 가해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가 인간의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쿠미 나이두 Kumi Naidoo, 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기후 위기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무려 25배나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킨 주범? 바로 인류!' 영상 보러 가기
*출처: KBS 지식 채널

기후 위기는 곧 인권위기!

기후 위기는 이전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인권위기에요. 기후 위기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 건강, 식량, 물, 주거 등 거의 모든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기후 위기는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복지권, 자기 결정권** 등 우리 삶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많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원주민, 어린이/아동, 청(소)년, 이주자, 난민,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취약계층,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기후 위기는 더 크고 긴급한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악화시킬 것입니다.

생명권

우리는 모두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폭풍, 홍수,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필리핀에서 태풍 욜란다(태풍 하이옌)로 1만여 명이 2003년에는 폭염으로 유럽대륙에서 3만 5천명이 사망했습니다. 국제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2030년과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말라리아, 영양실조, 설사병과 열 스트레스로 매년 25만 명이 목숨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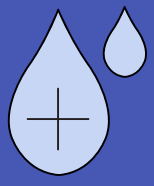
건강권

우리는 모두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폭염과 화재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위험을 증가시켜요.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되는 자연재해 등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어요. 감염병도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확산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이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경고해왔어요.

주거권

우리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주거 등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주거권을 위협합니다. 홍수나 산불 등 극심한 자연재해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고 이재민을 발생시켜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을 위협합니다. 실제로 태평양에 있는 섬 국가들은 물에 잠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국토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어요.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



우리는 집 안팎에서 사용할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기온 상승, 해빙,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기후변화는 물(수자원)의 질과 양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홍수, 태풍과 같은 극심한 자연재해는 수자원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에도 영향을 미쳐 물을 오염시키고 이를 통해 질병에 걸리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기후변화는 21세기 인권에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 메리 로빈슨 Mary Robinson,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위기를 대하는 마음가짐

현재 기후 위기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거대한 지구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평소에 환경보호를 위해 분리수거, 자원 절약 등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 더욱 좌절감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후 위기에 맞서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 더 많이 떠들고 집과 학교, 거리에서 이야기해야 해요.

기후 위기는 인간의 활동으로 생겼으니 인간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국제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결국 급격하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만이 기후변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기후 위기의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거대한 기후 위기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고 지속해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기후 위기 대응 조치**들이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을 긴급히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사람들을 보호하라
- 영향받는 사람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라
- 기후 행동이 인권에 부합하도록 하라
- 정보, 참여, 구제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라
- 영향받는 사람에게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라
- 국제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라
- 실향민과 실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라
- 기업을 규제하라

정부에게 요구하는 기후 위기 대응 조치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불타는 인권: 기후 위기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보고서 보러 가기

우리가 미래를 지키는 법

매주 금요일, 학교 대신 길거리로 나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 16살 중학생입니다. 길을 지나던 누군가 그레타에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왜 시위를 하고 있니? 학교에 가야지” 그레타는 대답했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왜 학교로 가야 하죠?”

2018년 8월, 그레타는 스웨덴 의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며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를 결석하고 의회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결석 시위(school strike for climate)’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어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그레타의 1인 시위는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의회 앞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으로 퍼져나갔고 1년 뒤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일본, 우간다, 나이지리아, 이탈리아, 브라질, 독일,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그 맨 앞에는 항상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레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알고 심각성을 인지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며 길거리와 집에서 자국의 정부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 위기에 맞서는 전 세계 ‘미래를 위한 금요일 (Fridays for Future)’

영상 보러가기

한국에도 기후 위기에 맞서는 **청소년기후행동(Youth 4 Climate Action)**이 있어요. 기후 위기에 맞서 우리의 일상과 안전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시위, 기자회견, 서명운동, 캠페인, 소송 등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2020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심하고 미온적인 기후 위기 대응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존할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어요. 청소년,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저와 우리야말로 멸종 위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윤해영,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현재 유스들은 그 누구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국경을 넘어 함께 기후 위기에 맞서고 있어요.

코로나19로 거리 시위가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결석 시위를 열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라이브, 틱톡 챌린지, 영상통화, 웨비나 등 끊임없이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운동을 주도했어요.

기후 위기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전하는 단편영화 #NatureNow #네이처나우 보러가기

"지금 우리 삶을 황폐화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전 세계 동맹 파업 참여를 촉구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미래를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레타 툰베리,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창시자 / 기후 위기 활동가

인용 및 참고 문헌

- 인권의 지평(2016), 조효제, 후마니타스
-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눈으로 기후 위기와 팬데믹을 읽다(2020), 조효제, 21세기북스
- 전 세계 청소년이 기후 운동을 변화시킨 3가지 방식(2020), 아구스틴 마조(Agustin Maggio), 그린피스 (Greenpeace)

ACTION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법

HOW TO SAVE OURSELVES

1. 기후 위기는 현재 혹은 미래에 나의 일상 속 어떤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보며 생각해봅시다.

TIP 각 조항의 해석은 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이란 무엇인가>를 참고하세요.

제1조 존엄하고 평등할 권리	제11조 유죄 입증 전 무죄 추정의 원칙	제21조 선거와 투표할 권리
제2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2조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권리	제22조 사회 보장 받을 권리
제3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13조 이동 권리 및 거주지 선택의 자유	제23조 노동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
제4조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금지	제14조 비호를 받을 권리	제24조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제5조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제25조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
제6조 법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제16조 국가 보호 아래 가정을 이룰 권리	제26조 교육의 자유와 평등
제7조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제17조 재산을 소유할 권리	제27조 저작권을 보호받을 권리
제8조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제18조 종교와 사상의 자유	제28조 모든 이가 위 모든 조항을 보장받을 권리
제9조 억울한 구금 금지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9조 공동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
제10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20조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30조 위 모든 조항에 대한 악의적 해석 금지

2. '미래를 위한 금요일'처럼 기후 위기에 맞서며 정부와 기업에 변화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간다고 상상해봅시다.
어떤 문구와 이미지를 넣고 싶은가요? 만약 실제로 피켓을 만든다면 택배 상자나 재활용 박스를 활용해보세요!

TIP 강렬하고 재치있게 표현한 전 세계 유스들의 피켓 문구(p.7)를 참고하세요

TIP 국가에 요구하는 기후 위기 대응 조치(p.5)를 살펴본 후 나만의 스타일로 문구를 작성해봅시다

3.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를 알리고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틱톡 영상을 만들어 봅시다. 영상을 만든 후 아래 해시태그를 걸고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만들기 어렵다면 직접 그림을 그려 아래 칸에 만화로 표현해봅시다!
#ClimateCrisis #기후위기 #YouthAction #AmnestyKorea

TIP 기후위기에 맞서는 유스들의 1억뷰 틱톡 영상과 지구를 구하라 #SavetheEarth 틱톡 영상 모음집을 참고하세요